



7면

활력 넘치는 비안도 섬 마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현장 방문

# 전주매일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음 11월 15일) 제2687호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6일 더 연장

내년 1월 3일까지  
전북도, 정부 조치 따라  
도내 14개 시·군도  
동일한 조치 시행키로

연말연시 특별대책  
강화된 조치 따르되  
그 외 시설은 2단계 적용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동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이달 8~28일) 연장 조치에 따라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국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간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1주간(이달 21~27일) 확진자는 일평균 14.7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29일부터 내년 1월 3



'지금은 긴급 방역 중'

정읍시의 한 농가의 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검사 중 AI 의심사례로 확인된 28일 오리농장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일까지 6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를 따르되 그 외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연휴 포함 4일간(이달 24~27일) 집중 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며,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했고, 겨울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차장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또한, 성탄절 등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해

넘이·해맞이 행사 참석 금지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적극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다시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삼가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가 지정

전주시, 미르아동병원  
전주고려·전주병원 등  
의심 증상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받아



호흡기 전담클리닉에 추가로 지정된 미르아동병원. (사진=전주시보건소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총 6곳으로 늘렸다.

전주시는 28일 미르아동병원과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등 3개소를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전주다솔아동병원과 호성전주병원, 대자인병원을 포함해 총 6곳이 됐다.

진료 대상은 ▲상기도 감염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호흡기·발열 증상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클리닉에 방문한 환자는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일반 병원처럼 진료를 받게 되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시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통해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감기 등 호흡기 환자의 진료를 위해 마련된 시설"이라며 "일반 환자나 호흡기 질환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인구 10만 명당 1곳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권장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환자 사망 여부 조기 예측 가능

원광대 의과대학 연구팀  
환자 입원 초기에 채취한  
혈액정보 이용 AI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 연구지원 구축  
인공지능센터 통해 수행



코로나 환자 사망여부 조기예측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원광대 연구팀.

의공학교실) 교수는 "코로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증상이 경미하다가 갑자기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초기 증상은 경미하지만, AI가 사망을 예측할 경우 증상과 상관 없이 선제적인 집중치료를 통해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개발된 코로나환자 사망 여부 조기 예측 인공지능 모델은 초기에 72개의 혈액정보를 후보군으로 탐색했으며, 분석해석(ANOVA)을 통해 림프구

(Lymphocytes), 호중성 백혈구(Neutrophils) 등 28개의 혈액정보를 확정하여 심층신경망과 랜덤포레스트의 앙상블 기법을 통해 최종 모델이 도출됐다.

특히 연구팀은 개발된 모델이 세계 모든 의료진과 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웹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웹사이트 http://beatovid19.ml에 접속하여 코로나 환자의 혈액정보를 입력하면 사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강우성(원광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박철(원광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고훈, 정희원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결과는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다기관 의료진 협력과 MIT Lincoln Lab 리카델 제이미스 박사의 모델 검증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이 연구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지원으로 구축한 인공지능융합센터를 통해 수행됐으며, JMIR(의료정보 분야 JCR 상위 4%) 12월호에 정식 게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북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 발표

'실장급' 김용만·김인태  
'국장급' 허전... 총 72명

전북도가 28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공모연수·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실·국장급, 과장급, 팀장급 및 6급 이하 승진요인이 발생해 이뤄진 것.

승진 인원은 6급 이하까지 총 72명이며, 이들 중 실장급은 2명, 국장급은 1명이다. <과장급·팀장급 명단 15면>

실장급 승진 내정자로 김용만 자치행정국장(57)과 김인태 환경복지국장(53) 등이 있으며, 국장급 승진 내정자로 허전 총무과장(55)이 있다.



김용만

김인태

허전

전북도는 실·국장급 승진인사 기준으로 관리자로서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허전 총무과장은 1986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중국사무소장과 김제부시장 등을 거쳤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이 맛이 청정라거다!**  
리얼탄산100% 청정맥아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